



KT, 헬레이포지티브와 베트남 원격의료 협약

KT가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헬레이포지티브와 베트남 원격의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KT는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했다. KT가 연내 출시 예정인 베트남 원격의료 플랫폼은 당뇨 관리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KT



LGU+, 세대 격차 해소 '리버스 멘토링' 진행

LG유플러스는 1990년대생 신입사원들이 임원들에게 MZ세대의 트렌드에 대해서 멘토링하며 세대간 차이를 좁혀나가는 '리버스 멘토링'을 진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수에는 21명의 신입사원 멘토와 10명의 임원이 참여해 총 10개 조가 활동 중이다. /LG유플러스

이대서울병원 '개원 3주년' 정형외과 연수강좌

이대서울병원이 오는 21일 이대서울병원 대강당에서 개원 3주년을 기념하는 정형외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 강좌는 이대서울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교수진을 비롯해 여러 대학병원 및 지역병원 전문가들이 학술 교류를 위해 함께할 예정이다.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과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연수강좌는 척추, 어깨, 수부, 고관절, 무릎, 족부·발목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LG헬로비전, 뉴스 선거정보 비중 확대

LG헬로비전은 1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스 내 선거정보 비중을 대폭 늘리고, 방송 권역 내 후보자 3000여 명의 정책 공약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밀착'이라는 케이블TV 지역채널의 강점을 살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것이라는 목표이다. /LG헬로비전



한국공항공사, 노사 상생 안전협력 협약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이용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사 간 안전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노사 상생 안전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사업장별 노동조합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체험형 안전교육 등 상생 안전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

韓 산업 1세대 이끈 주역... 구자학 아워홈 창업주 별세

故 구인회 LG 창업주 셋째 아들 LG그룹서 전문경영인으로 활약

구자학 아워홈 회장이 12일 오전 5시20분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구 회장은 1930년 고 구인회 LG 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진주고등학교를 마치고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해 1959년 소령으로 전역했다. 군복무 시절 6·25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호국영웅기장 등 다수의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후 미국에 건너가 디파이언스 대학교 상경학과를 졸업했으며 충북



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

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1957년 고 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셋째 딸인 이숙희 씨와 결혼했으며, 구 회장은 10여년간 제일제당 이사와 호텔신라 사장 등을 지내며 삼성

그룹에서 일했다.

1969년 삼성이 전자산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LG그룹(당시 금성)과 경쟁구도가 형성되자 구 회장은 LG 그룹으로 돌아갔다.

이후 럭키 대표이사, 금성사 사장, 럭키금성그룹 부회장, LG 반도체 회장, LG 엔지니어링 회장, LG 건설 회장 등을 역임하며 LG 그룹에서 전문경영인으로 활약했다.

2000년에는 LG유통의 식품서비스 부문과 함께 그룹에서 독립해 아워홈을 설립했다. 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21년간 아워홈은 LG, LS그룹에 납품하면서 국내를 대표하는 단체급식·식자재 유통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현재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지분 38.6%를, 미현·명진·지은 세 자매가 합산 지분 59.6%를 보유하고 있다.

구 회장은 최근까지 회장 직함은 유지하면서도 고령으로 사실상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아내 이숙희씨와 아들 본성(아워홈 전 부회장), 딸 미현·명진·지은(아워홈 부회장)씨가 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8시다. 장지는 경기도 광주공원묘원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기아 '니로 플러스' 사전계약 시작... '택시·캠핑용' 최적화

기획 단계부터 고객 의견 반영

기아가 택시 등의 용도에 맞춰 개발한 '니로 플러스'를 이달 말 출시한다. 캠핑 목적에 맞게 설계된 캠핑 패키지도 공개됐다.

기아는 자사 첫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Purpose Built Vehicle)인 '니로 플러스'의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니로 플러스는 1세대 니로 EV를 기반으로 특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



기아 니로 플러스.

발한 파생 PBV 모델로 택시나 법인용 차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특화된 모델이다. 1세대 니로 EV를 기반으로 전고

와 전장을 늘리고 실내 구성을 최적화해 차별화된 공간성을 확보했으며 기획 단계부터 고객 의견을 반영해 맞춤 사양을 적용했다.

64.0kWh 고전압 배터리와 최고 출력 150kW 모터를 조합해 접지력을 확보하면서도 구름 저항을 개선한 신규 타이어를 적용하고 회생제동 시스템 제어를 최적화해 1회 충전 시 392km(17인치 타이어 기준 복합 전비 5.3km/kWh)를 주행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 디오스 와인셀러, 성수서 만난다

팝업스토어서 시음행사 등 열려

LG전자가 '힙스터'들에 다양한 색깔의 와인셀러를 소개한다.

LG전자는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서울 성수동 '위키드와이프'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와인셀러'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와인셀러에 보관한 와인과 와인셀러에 보관하지 않은 와인의 맛을 비교하는 시음행사도 열린다. 또 LG전자는 인스타그램에 방문 인증사진을 등록한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한정판 와인잔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와인셀러는 8/49/77/81/121병을 보관할 수 있는 5종 제품 라인업을 갖췄다.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감안해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LG전자는 서울 성수동 '위키드와이프'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와인셀러'를 선보인다. /LG전자

스마트 기능도 적용했다. LG 씽큐(LG ThinQ) 앱을 연동한 후 와인의 전면 라벨만 찍으면 이름, 종류, 생산지, 가격, 품미, 어울리는 음식, 고객 평점 등 와인을 즐기는 데 유용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와인을 보관하면서 위치를 설정하면 LG 씽큐 앱으로 원하는 와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동안의 보관 와인 이력이나 현재 보관 중인 와인의 종류별 수량도 바로 알 수 있어 편리하다.

/김재용 기자 juk@

윤종규 회장, 유엔 COP26 회의 참석

(KB금융)

글로벌 친환경기업 경영진 참여

KB금융그룹이 ESG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KB금융은 윤종규 회장(사진)이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국제연합(UN)과 영국정부로부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단 리더십 단체인 'COP26 비즈니스 리더스 그룹' 회원으로 초청받아 지난 11일 첫 회의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COP26 비즈니스 리더스 그룹'은 UN과 영국정부의 주도로 설립된 단체다. 지난해 COP26을 이끌었던 알록 샤마 의장을 비롯해 '유니레버', '이케이', '마힌드라' 등 글로벌 친환경기업 경영진들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리더십 단체다.

이 단체는 매일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COP26 '글래스고 기후협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올해 11월 이집트에서 개최 예정인 COP27에서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



할 예정이다. UN과 영국정부 부가윤종규 KB금융 회장을 비즈니스 리더스 그룹 회원으로 초청한 배경에는 KB금융이 아시아 금융권 최초의 '과학기술 기반 탄소 감축 목표(SBTi)' 승인과 '넷제로은행연합(NZBA)' 아시아·퍼시픽 대표은행 활동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후변화와 '글래스고 기후협약'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윤종규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자체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니즈는 확대될 것"이라며 "친환경 기술,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인사

◆교육부 ◇과거복귀 △예산담당관 예혜란 △서기관 김을 ◇전보 △기획담당관 박대림 △인재양성정책과장 정상은 △학 교혁신지원실 신창현 △창

원대학교 김용태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반장 장요민 △장관실 비서실장 정기원 △수산자원정책과장 임태호 △지도교섭과장 임창현

부음

▲김현채씨 별세, 김영근(광주매일신문 사진부 국장)씨 부친상, 박옥배(전 광주CBS 본부장)씨 장인상=12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VIP장례타운 101

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062-521-4444

▲안병일씨 별세, 이두봉(인천지검장)씨 장인상=1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6시, 02-3410-3151